

2026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시험

학생부종합 학교생활우수자(자율융합계열, 디자인예술학부 공통1번)

※ 제시문 숙지 시간 20분, 면접 시간 10분입니다.

【문제 1】 아래의 제시문을 잘 읽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우곤(淳于髡)이 말했다.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예법(禮法)입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예법이니라.” 순우곤이 또 말했다.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 잡아당기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끌어 잡아당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승냥이와 이리 같은 짐승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예법이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행하는) 권도(權道)이니라.”

[나]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는 방법을 썼다.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근야근 폭넓게 읽었다.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몇 만 번씩 숫자를 헤아려 가며 되풀이해 읽었다.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같이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간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덩달아 탕건의 윗부분이 잘려져 나갔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조선 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과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신체는 터럭과 피 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문제 1-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상황에서 올바른 예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1-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에 소개한 독서법 각각을 제시하고, [다]의 그림과 관련하여 조선 시대 윤리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시오.

[출제 의도]

(문제 1-1)

제시문 [가]는 『맹자』 출전으로서 물에 빠진 형수의 예시를 통해 전통적 ‘예법’의 윤리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한 유명한 문장이다. 권도는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즉각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늘 지켜야 하는 도리인 상도(常道)를 일방적으로 고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도를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올바른 예법을 따르자면, 형수가 물에 빠졌을 경우에 남녀유별에 입각하여 손윗사람인 형수의 손을 포함한 신체를 잡고 구해주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도를 적용하여 형수를 구해주는 행위가 가능한 것이다. 이 문제는 전통적 윤리 도덕에 바탕을 둔 예법의 본질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두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제 1-2)

제시문 [나]는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통해 목적에 따라 알맞은 독서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 글이다.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권도에 입각하여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 다독(多讀)과 정독(精讀)의 독서법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함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그 예로 제시문에서 홍석주의 ‘다독’법과 김득신의 ‘정독’법을 예로 들었다. 제시문 [다]는 국보 240호인 윤두서의 「자화상」이 걸작으로 평가받는 예술적 가치를 물었다. 즉 제시문 [가]에 제시한 예법과 연관지어 그림의 표현이 조선에서는 ‘효’라는 당시 윤리 도덕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미완성 작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그림이 시대를 초월하여 윤리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해설]

(문제 1-1)

본 문항은 논리적 근거 제시 및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맹자』 「이루(離婁)」 하(下)에 실린 글이다. 제(齊)나라 변사(辯士)인 순우곤이 남녀유별을 전제로 물에 빠진 형수의 구출 여부를 맹자에게 질문함으로써 인(仁)의 선택과 당시 예법 붕괴의 모순적 상황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예법’의 윤리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맹자는 임기응변의 조치와 상통하는 ‘권도’를 통해 때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것도 예법의 하나임을 역설한다. 즉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남녀유별에 직면하면, 여자이자 손윗사람인 형수의 신체를 잡아 구제함은 예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경우이므로 인(仁)에 입각한 권도를 적용하여 형수를 구제하는 행위가 온당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전통적 윤리 도덕에 바탕을 둔 올바른 예법의 본질과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두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1-2)

본 문제는 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 [나]는 옛사람들의 독서 방법을 통해 수준과 그 목적에 따라 올바른 독서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옛 사람들의 독서법을 예로 들어 역설하고 있다. 그 독서법 각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권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즉 그때그때 알맞게 행하는 방법이라는 권도에 입각하여 독서의 목적에 따라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독서법에 속하는

다독(多讀)과 정독(精讀)의 독서법을 시의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예로 제시문에서 홍석주의 ‘다독’ 법과 김득신의 ‘정독’ 법을 예로 들었다. 제시문 [다]는 국보 240호인 윤두서의 「자화상」이 조선 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예술적 가치를 물었다. 즉 제시문 [가]에 제시한 예법과 연관 짓는다면, 그림의 표현이 조선에서는 ‘효’라는 당시 윤리 도덕적 가치관에 위배되고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적 묘사와 미완성 작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그림이 시대를 초월하여 윤리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달리 평가될 수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채점 기준]

(문제 1-1)

‘상’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순우곤과 맹자의 대화 전개를 잘 이해하고, 형수가 물에 빠진 상황에서 남녀유별을 중시하는 전통적 예법에 따라 방관해야 하는 입장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에 기반한 인(仁)을 따라 구조해야 하는 입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권도’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권도 역시 늘 지켜야 하는 상도(常道)를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실천하는 예법의 일환임을 설명할 수 있다.

‘중’ : 제시문 [가]의 전체적인 문맥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지만, 예법과 권도에 대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하’ : 제시문 [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예법과 권도에 대해 어느 한 쪽 측면만 설명하거나 그 설명 내용이 부실하다.

(문제 1-2)

‘상’ :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권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나]에 나타난 독서의 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독서법에 홍석주의 예시로 대표되는 다독과 김득신의 예시로 대표되는 정독의 방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다독과 정독의 효용성을 각각 설명할 수 있다. [다]의 그림은 조선 시대 윤리 도덕적 가치 중 ‘효(孝)’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 근거로 신체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음에도 그림에서는 귀와 목과 상체 등이 누락된 얼굴 표현만 존재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인간 존중에 대한 사실주의라는 관점과 미완성 작품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시대의 기준을 넘어서는 예술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해서 설명할 수 있다.

‘중’ :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권도의 의미를 이해하지만, 이를 제시문 [나]에 적용하여 독서법을 제시하는 데는 제한적 이해력을 보인다. 또한 다독과 정독의 독서법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미숙하다. [다]의 그림에 대해서는 윤리 도덕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하’ : 제시문 [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독서법을 제시하는 데도 적용하지 못하며, [다]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다.